

인/사/말



신경외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추위에 봄이 오지 않을 듯하더니 3월의 문턱에 들어서자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먼저 여러 회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부족한 제가 지난 1년간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잘 수행할 수 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지난 1년동안 정위기능신경외과학 교과서를 출간하였으며, 학회 홈페이지 개설과 다양한 통증 치료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아시아·태평양 정위기능신경외과 학술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금번 학회에는 Stereotactic Neurosurgery의 최신 지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세미나를 준비하였으며, 아울러 Medical Robotics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다양한 불인성 통증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내용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상과 구연 발표상 및 포스터상을 예년과 같이 준비하였으며, 구연발표와 토의 시간도 충분히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다양한 경험과 좋은 연구 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제가 늘 강조한 “기본에 충실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9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박 정 울

